

지혜의 말씀

불기 2563년 3월 / 통권 457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證道歌(증도가)

봉 용 발 성 호 석
奉龍鉢解虎錫이여

우 고 금 환 조 역 역
雨鈷金銀鳴歷歷구나.

용을 항복시킨 발우와 호랑이 싸움을 말린 석장이여,
두 갈래 금 고리가 딸랑딸랑 올리는 구나.

부 시 표 형 허 사 지
不是標形虛事持라

이 래 보 장 친 증 적
如來寶杖親蹤跡이다.

모양만 드러내는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래의 보배 지팡이가 몸소 남긴 발자취이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속도감 / 윤성스님

불교상식 · 7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말씀 · 11

알림마당 · 17

대광사 3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대광유치원 3월 행사계획

어린이법회 3월 활동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표지그림 / 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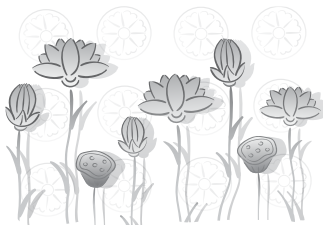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속도감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속도감이 느려지나보다. 전에는 무슨 일이든 숨씨 있게 빨리 처리하고 재빨리 다른 일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하던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다고 일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자동차 운행하는 속도도 전에 비해 많이 느려졌다. 요즈음은 많이 달려도 130km를 지나지 않는다. 젊은 시절엔 170~180을 달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불안감과 긴장감을 도무지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순간 반응이 느려져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히 둔해진다. 그래서 빨리 달리는 게 자신이 없고 두려움이 생긴다. 차야말로 빠른 대처 능력이 절대 필요한 기계다. 평균 100~120으로 달리는 게 지금의 내겐 적당한 느낌이다.

사실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속도가 1초에 약 30km가 된다고 한다. 소리 속도(음속)는 1초에 340m,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km이니까 빛보다는 느리지만 음속(소리)보다 10배정도는 빠른 셈이다

지구는 자전하면서 1초에 340m를 날아가는 권총의 총알보다 42배 빠른 (적도 부근에서는 시속 1,667 km)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다. 태양은 또 총알의 310배 속도로 은하계를 돈다고 한다. 태양도 지구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빠른 지구를 타고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고 있다.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 조급증을 내며 고속도로를 질주하지 않아도 이미 시속 1,667Km의 엄청난 속도로 은하계를 날고 우주를 날고 태양 주위를 여행하고 있다.

우리 은하계에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약 1,500억개 정도가 있고 약 1천억개 가량이 중심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무한대의 별들은 행성과 항성과 위성들이 뭉쳐져 하나의 태양계를 이루고, 그 태양계가 1,500억개가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가 된단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별들이 모여 이루어진 은하계는 우주에 1천억 개 이상 존재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에는 항하의 모래 수와 같은 강이 있고 그 강의 모래 수와 같은 강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말씀하셨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지구 자전 속도가 느려져 내년에 20차례 이상 강진이 있을 것"라는 예견을 하고 있다. 지구의 자전은 지구 지진판에 절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다. 또 지구의 온난화는 자전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학설도 제시했다.

하버드 연구팀의 제리 미트로비카 교수는 “지구 온난화로 빙하



가 녹는 속도가 전보다 많이 빨라졌다”며 “녹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지구 자전속도는 더 느려질 것”이라고 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는 가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다. 진정 지구를 사랑하고 지구를 아낀다면 자연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는 가로 지진도 허리케인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지구의 질서를 흐트리고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 히말라야 꼭대기가 쓰레기로 더러워지고 있듯이 우주의 공간도 인간들이 이기심으로 버린 우주선 쓰레기들로 어지러워지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구를 더럽히고 우주를 어지럽혀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려는가? 노상 하늘을 우러러 두 팔 벌려 기도하고 합장하고 오염하면서 정작 하늘을 두려워하는 기색은 도무지 없으니 어찌된 일인가?

“모든 법은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며, 모든 법은 마음에 의해 없어진다. 내 생노병사는 내 업보에 의해 결정되며, 세간의 생주이멸은 공존하는 중생들 공업에 의해 결정 된다.”

이것이 불교가 세상을 보는 눈이다.

제발 이르노니 어디로 가든지도 모르고 그냥 광기로 내닫는 속도를 줄여야한다. 달리는 말에서는 꽃도 산도 단풍도 제대로 못 보고 진정한 사랑도 인생도 누려보지 못한다.

조급증의 노예가 되어 마냥 허덕이는 삶에서 벗어나 저 드넓은 우주를 유영하듯 여유롭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야 한다. 광속으로 미친 듯 내닫는 세상에 함께 춤추어선 안 된다.



부처님의 생애

1) 룸비니 동산의 탄생

석가모니 부처님은 2600여 년전, 히말라야 기슭의 까뻬라(迦毘羅)국 사까(釋迦)족의 왕자로 태어나셨다. 아버지는 까뻬라국의 군주 쏫도다나(淨飯)왕, 어머니는 마야(摩耶)왕비였다. 불전(佛典)에 따르면 마야왕비는 흰 코끼리가 자신의 몸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부처님을 잉태했다고 한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왕비는 출산을 위해 친정인 켈리야국으로 향했는데, 가는길에 룸비니 동산에서 무우수(無憂樹) 가지를 잡고 옆구리로 부처님을 낳으셨다. 부처님의 탄생 모습은 매우 극적이다.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며 사자처럼 당당히 말씀하셨다.

하늘 위 하늘 아래 (天上天下)

내 오직 존귀하나니 (唯我獨尊)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삼계 (三界皆苦)

내 마땅히 안온하게 하리라. (我當安之)



이 내용은 부처님의 출현을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표현한 것이다. 세상에서 불성(佛性)을 지닌 인간과 생명은 그 자체로 모두 존귀하다는 뜻으로,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보여 주는 탄생의 이야기이다.

2) 아시타 선인의 예언

태자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쏏도다나왕은 아가의 이름을 ‘싯닷타(悉達多)’라고 지었다. 고탓마(瞿曇)는 성씨(姓氏)로 ‘가장 훌륭한 소’라는 뜻이고, 싯닷타는 ‘모든 것을 이룬다, 는 의미이다. 태자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를 잃는 불행을 겪는다. 그래서 당시의 풍습대로 마야왕비의 동생인 마하빠자빠띠에 의해 양육된다. 불교교단 최초의 비구니로 기록된 미하빠자빠띠는 누구보다 정성껏 태자의 양육에 힘썼다고 한다.

쏏도다왕은 태자의 탄생을 축복하고 아기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선인(仙人)들을 초청했다. 그 중 많은 이들로부터 있던 아시타 선인은 아기부처님을 보고, 온 세상을 덕으로 다스리는 훌륭한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되거나 출가하여 깨달음을 이루는 위대한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축복을 했다.

3) 싯닷타의 성장

① 농경제의 명상

쏏도다나왕은 하나밖에 없는 태자가 출가하여 수행자가 될 것을 걱정해서 태자의 주변에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더위와 추위를 피하는 3개의 궁전을 지어주고 귀한 음식을 먹고 호화로운 옷으로 치장하도록 했다.



태자는 자라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거기다가 매우 영특했고, 무술에도 능했다. 그러나 호화로운 삶이 넘쳐나는 궁전에서조차 밋밋한 왕자는 자주 사색에 잠기곤 했다. 어머니를 일찍 잃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태자는 천성적으로 생각이 깊고 사려분별이 뛰어났다.

화창한 어느 해 봄,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며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농경제(農耕祭)가 열리던 날이었다. 어린 왕자는 농경제가 신기한 듯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농부들이 땅을 파자 땅 속에 있던 벌레들이 꿈틀거리며 기어 나왔고,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 온 새가 벌레를 낚아채 공중으로 사라졌다. 그 새 역시 더 큰 새에게 낚아채였다. 기원하는 현장에 서 빼앗고 빼앗기는 삶의 현실을 목격한 것이다.

태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농경제가 끝나자 태자가 없어진 것을 알고 모두 태자를 찾아 나섰는데, 그는 잠부나무 그늘 아래 앉아 조금전에 목격한 일들에 대해 깊은 명상에 잠겼다.

② 사문유관

태자가 자주 깊은 사색에 잠기는 것을 우려한 왕은 우선 혼인을 서둘렀다. 태자는 아름다운 여인 야소다라(耶蘇陀羅)를 배필로 맞았는데 그의 나이 19세 되던 해이다. 화려한 궁전에서 결혼생활을 하던 왕자는 어느 날인가 말을 타고 동쪽 성문 밖으로 나들이를 나갔다가 늙어가는 노인과 마주쳤다. 노인은 주름투성이 얼굴에 눈물과 콧물, 침까지 흘러내리는 기력이 쇠한 사람이었다. 그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등이 활처럼 굽어 있었고 사지를 덜덜 떨고 있었다.

태자는 생각에 잠겼다.



‘늙는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구나. 사람으로 태어난 이는 누구도 늙는 것을 피할 수 없구나. 나 또한 초라하게 늙어 사람들의 조롱과 혐오를 필 수 없으리라.’

싯닷타 태자는 노인의 모습에 놀라기도 하였지만, 자신도 저런 모습을 피할 길이 없다는 생각에 즐거울 수 없었다.

그 후 태자는 다시 성의 남문에서는 신음하는 병자를, 서문에서 죽은 시체를 만났다. 왕자는 역시 충격과 고민에 빠졌다.

‘대체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인가?’

‘인생은 태어났지만 결국 죽는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 태자가 북문으로 나갔을 때 또 다른 상황과 마주친다. 그는 남들과는 차림새가 다른 매우 특이한 사람을 만났다.

“저 사람은 사문(沙門)입니다. 진리를 찾아 집을 떠나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시종이 말해 주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에서 태자는 희망을 보았다. 마치 꽉 막혀 있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싯닷타 태자는 동서남북의 성문 밖에서 생로병사(生老病死)에 매여 있는 인간존재의 실상을 보았다. 그리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괴로움을 해결하려는 출가사문을 동경하며 출가를 생각했다. 태자의 이와 같은 경험을 경전에서는 사문(四門遊觀)으로 표현하며 직접적인 출가의 동기로 보고 있다.



부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제2품 작은 법문의 품

7. 바라문의 삶에 대한 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왓띠 시의 제따와나에 있는 아나타뻔디까 승원에 계셨다.
2. 마침 그때 많은 늙고 연로하고 나이가 들고 만년에 이르러 노령에 달한, 꼬쌀라 국의 큰 부호들인 바라문들이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3. 그들은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아 그들 큰 부호들인 바라문들은 세존께 여쭙었다.
[바라문들] “고따마여, 대체 현재의 바라문들은 옛날 바라문들이 행하던 바라문의 삶을 따라 살고 있다고 봅니까?”
[세존] “바라문이어, 지금의 바라문들은 예전 바라문들이 행하던 바라문의 삶을 따라 살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4. [바라문들] “그러면, 고따마여,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옛날 바라문들이 행하던 바라문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세존] “그러면 바라문들이여, 잘 듣고 새기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바라문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 바라문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5. [부처님] “옛날에 살던 선인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고행자였습니다. 그들은 감각적 쾌락의 대상들을 버리고, 자기의 참된 이익을 위해 유행하였습니다.
6. 그들 바라문들은 가축도 갖지 않고, 황금도 곡식도 갖지 않고, 그러나 베다의 독송을 재보와 곡식으로 삼아, 하느님의 보물을 지켰던 것입니다.
7. 갖가지 채색으로 물들인 의복과 잘 만들어진 침상과 주거를 갖춘 풍요로운 지방과 왕국의 사람들은 모두들 바라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8. 바라문들은 처형을 면하고 재산의 압류를 면하였으며, 정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결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9. 그 옛날의 바라문들은 사십 팔 년 동안이나 동정을 지키며 청정한 삶을 살았고, 명지와 덕행을 구했습니다.
10. 그 후에 바라문들은 다른 계층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지 않았고, 아내를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화목하여 즐거워했습니다.



11. 월경 기간이 끝난 후에 , 바른 시기를 제쳐두고, 그 사이에 바라문들은 결코 성적 교섭을 갖지 않았습니다.
12. 청정한 삶과 계행을 지키는 것, 정직하고, 친절하고, 절제하고, 온화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인내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13. 그들 중에서 으뜸가는 용맹스런 바라문들은 성적 교섭에 빠지는 일을 꿈속에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4. 그 행동을 본받아, 이 세상에 일부 양식 있는 사람들은 청정한 삶을 사는 것과 계행을 지키는 것과 인내하는 것을 찬탄했습니다.
15. 그들은 쌀과 침구와 의복과 버터와 기름을 정의롭게 모아 그것으로 제사를 지냈고, 제사를 지낼 때에 결코 소를 잡지 않았습니다.
16.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 또는 다른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소들은 우리들의 최상의 벗입니다. 그리고 소들한테서는 약들이 생깁니다.
17. 소들은 음식을 제공하고, 근력을 제공하고, 훌륭한 용모를 제공하고, 또 좋은 건강을 제공합니다. 소에게 이러한 이익이 있음을 알아, 그들은 소를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18. 바라문들은 손발이 부드럽고 몸이 크며 용모가 단정하고 명성이 있으며, 몸소 실천하며 할 일은 하고, 해서 안 될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은 안락하고 번영했습니다.

19. 그런데 하잘 것 없는 속에서 하잘 것 없는 것, 왕자의 영화로운 삶과 화려하게 단장한 부인들을 보고 나서, 그들에게 전도된 견해^①가 생겨났습니다.

20. 잘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수놓아진 준마가 이끄는 수레, 여러 방으로 나뉘지고 잘 배치된 주택과 거처를 보고 나서입니다.

21. 소들의 무리에 둘러싸이고 아름다운 미녀들이 뒤따르는 인간의 막대한 부를 누리고 싶은 열망에 바라문들은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22. 그래서 그들은 베다의 진언들을 편찬하고, 저 옥까까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바라문들] ‘당신은 재산도 곡식도 풍성합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은 재보가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은 재물이 많습니다.’

23. 그래서 수레 위의 정복자인 왕은 바라문들의 권유로 말의 희생제, 인간의 희생제, 핀을 던지는 제사, 쏘마를 마시는 제사, 아무에게나 공양하는 제사, 이러한 제사를 지내고, 바라문들에게 재물을 주었습니다.

24. 소들과 침구와 의복, 잘 치장한 여인들, 잘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수놓아진 준마가 이끄는 수레,

25. 여러 방으로 나뉘어 있고, 잘 배치된, 즐길 수 있는 주택을 여

① AN. II. 무상을 무상이라고 하는 것,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의 전도가 아니고 마음의 전도가 아니며 견해의 전도가 아니다



러 가지 식량을 가득 채워 바라문들에게 재물로 주었습니다.

26. 이리하여 그들은 재물을 얻어 축적하는데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욕망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들의 갈애는 더욱 더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베다의 진언들을 편찬하여 다시 옥까까 왕을 찾아 갔습니다.

27. [바라문들] ‘물과 토지와 황금과 재물과 곡식이 살아있는 자들의 필수품인 것과 같이, 소도 사람들의 필수품입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은 재물이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은 재보가 많습니다.’

28. 그래서 수레 위의 정복자인 왕은 바라문들의 권유로 수백 수천 마리의 소를 제물로 잡게 되었습니다.

29. 두 발이나 양 뿔, 어떤 것으로든지 해를 끼치지 않는 소들은 양처럼 유순하고, 향아리가 넘치도록 젖을 짤 수 있었는데, 왕은 뿔을 잡고 칼로 소를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30. 칼로 소들이 베어지자 신들과 조상의 신령과 제석천, 아수라, 나찰들은 ‘불법적인 일이다.’ 고 소리쳤습니다.

31. 예전에는 탐욕과 굶주림과 늡음의 세 가지 병밖에는 없었소. 그런데 많은 가축들을 살해한 까닭에 아흔 여덟 가지나 되는 병이 생긴 것입니다.

32. 이와 같은 불의의 폭력으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것을 죽인다는 것은 그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지내는 자들은 정의를 파괴하였던 것입니다.



33. 이와 같이 옛날부터 내려온 풍습은 지혜로운 이의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볼 때마다 제사지내는 자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34. 이렇게 해서 법이 무너질 때, 노예와 평민이 나누어지고, 여러 갈래로 왕족들이 분열하고, 아내는 지아비를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35. 왕족들이나 하나님의 친족들 또는 종족에 의해 수호되고 있던 다른 자들도 태생에 대한 윤리를 버리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36.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그들 대부호인 바라문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바라문들] “존자 고탓마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탓마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탓마여,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보이듯이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주듯이, 눈을 갇춘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듯이, 존자 고탓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진 고탓마께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또한 그 수행승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존자 고탓마께서는 재가신자로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 바쳐 귀의하겠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 -



대광사 3월 법회 및 행사

- ◆ 3월 7일 (음력 2월) 초하루 입재 오전10시30분 설법전
- ◆ 3월 9일 초하루 회향
- ◆ 3월 10일 천일기도 100일 입재
- ◆ 3월 14일 출가재일. 약사재일
- ◆ 3월 21일 보름법회.열반재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3월 23일 신도기본교육 수계식 오전 10시 설법전
- ◆ 3월 26일 제18기 불교대학 1학기 개강 오전 10시~12시
- ◆ 3월 28일 용왕재 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 ◆ 3월 30일 용왕재 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관음재일 다나리기도 저녁 6시 30분 대웅전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고맙습니다

대광 후원회

(2019. 1. 21.~2. 20.)

황두관 10,000	원광한의원 100,000	홍예현 60,000	이연숙 100,000
홍승운 10,000	하효정 500,000	서경스님 50,000	윤숙희 10,000
카 텍 300,000	대광사 100,000	김병문 30,000	공상섭 30,000
강 란 10,000	정대식 20,000	법연화 20,000	
정진이 20,000	유미란 50,000	찬불단 50,000	
박미애 10,000	이미정 50,000	조성부 100,000	

◆ 금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공양미 공양

변창인, 박찬현

♥ 떡 공양

최경순, 반지유

♥ 보름기도 공양

최진환, 이광석, 최명혜, 강상호, 강상희

유평라워, 황석태, 정지은, 김수민

♥ 정초기도회향

이미정, 안종권, 이현실, 박은찬, 구동채, 김지원, 구나예, 구비주, 구다혜

강상호, 강상희, 한찬상, 김성문, 이용원



3월 대광유치원 행사계획

1. 2019학년도 제36회 입학식

- 일시 : 2019년 3월 4일(월) 오후 2시
- 대상 : 신입생, 학부모
- 장소 : 유치원 설법전

3월 어린이법회 활동

1. 2019년 개학법회

- 일시 : 2019년 3월 16일(토)
- ★ 어린이 토요법회 시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12시 입니다



**진해대광사 찬불단 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 시라회: 매주 목요일 ● 찬불단: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 545-9595



佛紀 2563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18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도기본교육 제18기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오계 수계자
교육기간	2019. 2. 26 ~ 3. 20	2019. 3. 26(화)~12. 3(화)
수 계 일	2019년 3월 24일(일)	(1년 과정 - 2학기제)

▶교육일시 : 신도기본교육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불교대학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접수기간 : 2018년 10월 1일부터 ~ 2019년 2월 말까지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 (신도증발급, 수계비, 수련회비 포함)
불교대학 1학기 15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수련회비 포함)

▶신청 준비물 : 사진3장, 신청서 작성, 신도기본교육비 5만원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총무소 055)545-9595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 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 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